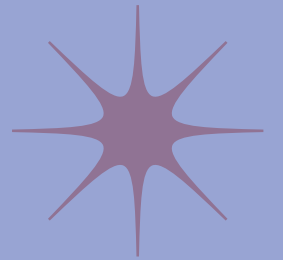


KEPCO E&C Family

2023. 01+02



COUNTLESS

셀 수 없이 많은 성과



COUNTLESS

단어 뒤에 붙어 '적은', '없음'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접미사 'less'. less는 어떤 단어와 만나면 無에서 有로, 부정에서 긍정으로 그 의미가 반전됩니다. 2023년 <KEPCO E&C Family>에서는 less를 만나 긍정적인 의미가 된 단어처럼,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한국전력기술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바라보는
꿈꾸는
대로대로



새해 계획 세우셨나요?

기술의 내일

- 04 CEO 신년사
희망찬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 06 E&Cless
신한울 1호기 성공적 준공
- 08 비하인드 토크
K-원전 신한울 1,2호기를 말하다
신한울 1,2호기 사업책임자 이준 처장
- 12 E&C 인포
KEPCO E&C VISION 2034

한기인 매일

- 14 참사랑봉사단
業연계 거점의료기관 비상발전기 점검 봉사활동
- 16 사이좋은 사이
원자력기술실 인허가팀 × 기계기술실 건설원전 보조계통설계팀
너와 내가 '우리' 되던 날
- 22 도시樂
감사와 응원이 깃든 미식 풍경
- 24 클래스콕
전기기술실 E전기계통팀 강자인 대리, 구선경 사원이 만든 유쾌한 하루
핸드빌딩 원데이 클래스
- 28 10만 원의 행복
첫 번째 주인공
에너지사업운영실 사업관리팀 전현정 사원

오늘도 스페셜

- 30 가족의 기록
정보보안실 보안운영팀 김정호 과장의 가족사진
- 36 다시 갈 지도
고성의 푸른 바다처럼 빛나는 날들이기를
- 40 물건은 준비됐겠지?
매일 앓고 싶은 책상을 만드는 오피스 잇템
- 42 오직 뮤직
마음의 문을 두드린 그 노래, 넌 감동이었어!
드라마 OST

- 44 E&C 뉴스
- 46 독자마당

JAN·FEB

통권 474호
발행인 김성암
발행일 2023년 1월 20일
발행처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등록일 1983년 7월 20일
주소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로 269(율곡동)
전화 054-421-3114
홈페이지 www.kepco-enc.com
이메일 miru@kepco-enc.com
기획·디자인 경성문화사(02-786-2999)
인쇄 화성에스지아이(054-773-7050)

2023년 신년사 新年辭

희망찬 계묘년 癸卯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사랑하는 한국전력기술 가족 여러분!!

희망찬 계묘년(癸卯年) 새해를 맞이하여 임직원 여러분과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UAE와 프랑스 그리고 영국, 울진, 월성, 고리 등 국내·외 현
장에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께도 따뜻한 격려의 말
씀과 함께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한국전력기술 가족 여러분!!

지난해 우리는 경영환경의 변화와 도전 속에서 임직원 모
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소임을 다한 결과, 성장의 모멘텀
(Momentum)을 확보하였으며 경영시스템의 기초를 튼튼
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정적인 사업영역 확보와 책임경영 및 디지털 전
환 등의 성과가 당초의 목표보다는 미흡했던 아쉬움이 있
습니다.

따라서 2023년에는 지난해 구축한 경영시스템을 동력으
로 삼아 회사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가
다시 한번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야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한국전력기술이 역점을 두고 함께 추진
해야 할 과제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원자력 등 에너지분야 엔지니어링 공기업으로서 명
실상부한 지위와 기반을 확보해 나가야 합니다.**

우선, 지난해에 기본전략을 마련하고 추진해온 ‘핵심사업
의 지위 강화’와 ‘안정적인 사업영역의 확보’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대외적으로도 산업계 및 오피니언 리더를 비롯하여 국민
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우리 회사의 가치와 중요성
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는 노력을 전개해야 합니다.

**둘째, 원자력 등 모든 분야에서 핵심기술을 자립하여 우리
회사 고유의 자산으로 만들어야 하고, 디지털 전환을 통하
여 지속가능한 경쟁우위를 뒷받침하여야 하겠습니다.**

핵심기술의 자립과 내재화가 완성되어야만, 우리 회사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의 방식을 주도할 수 있고, 미래사업
분야에서도 독자적인 기술과 사업역량을 확보할 수 있습
니다.

따라서 혁신형 SMR 등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기술개발에
있어서도 향후 우리 회사가 엔지니어링 전담기관으로서
지위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최적의 전략을 마련하여 추진
해야하겠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우리 회사의 고부가가치 엔지니어링 기
술이 지속가능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전
환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디지털 전환은 이 시대의 화두이며 이미 급격하게 진행이
되고 있지만, 우리 회사는 방향과 전략에서부터 여전히 공
감대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추진 상황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
하고 전략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단순히 새로운 ICT 기술과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에 그쳐서
는 안되며, 기존의 조직, 프로세스, 비즈니스 모델 등에 대
한 종합적인 혁신전략을 갖추고 추진함으로써 우리 한국
전력기술만의 독자적인 모델을 구축하여야 하겠습니다.

**셋째, 우리 회사 경쟁력 창출의 원천이라 할 수 있는 R&D
수행체계에도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합니다.**

혁신을 선도하는 기술과 기업들이 시장을 선점하는 환
경에서, 엔지니어링 역량을 점증적으로 개선하는 수준의
R&D 체계로는 생존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중장기적 통찰과 전략을 가지고 미래의 핵심기술을 개발
할 수 있는 R&D 수행기반을 신속하게 구축해 나가야 하겠
습니다.

또한, 미래전략기획본부를 중심으로 사업본부와 전력기술
연구원은 기술의 사업화 및 혁신 그리고 인력운영의 합리
화 등에 대하여 공감대를 가지고 R&D 체계를 재정립해야
합니다.

아울러 전력기술연구원과 인재개발원은 중장기 기술개발
그리고 인력양성에 대한 로드맵을 구축하여 최고의 기술
력과 인재들을 꾸준히 확보해야 하겠습니다.

**넷째, 새해에는 회사의 미래를 위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자
산 가치의 극대화를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먼저, 복지제도의 확충이 제한적인 여건 속에서 임직원 모
두가 ‘큰 틀의 복지’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자산의 확보를 위하여 노와 사가 함께 협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원자력을 비롯하여 에너지신사업 등에서 우리 회사
의 기술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지분투자 등을 통해서도
자산의 가치와 사업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끝으로 우리 모두가 ‘공통의 가치’ 속에서 함께 미래를 만
들어 가는 조직문화를 구축하여야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명실상부한 지위와 기반 확보’, ‘핵심기
술의 자립과 디지털 전환 추진’, ‘R&D 수행체계의 혁신’, ‘자
산가치의 극대화’가 바로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공통의 가
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공통의 가치’가 완성되어질 때 구성원의
자긍심 그리고 자부심과 함께 회사의 위상도 저절로 높아
질 수 있을 것입니다.

큰 틀에서 임직원 모두가 이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면서, 한

국전력기술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하여 스스로 비전과
동기를 부여하고, 경영마인드를 한 단계 고취하는 역동적
인 회사를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한국전력기술 가족 여러분!!

새해 첫날 아침에 제가 좋아하는 한자성어를 말씀드리면
서, 신년 메시지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유난동당(有難同當), 유복동향(有福同享)’이라는 한자로
써, “어려움이 있으면 함께 감당하고, 복이 있으면 함께 누
린다”는 뜻입니다.

하루하루가 다르게 전개되는 경영환경에서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함께 해나가는 마음가짐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전력기술 가족 모두가 서로의 손을 잡고 어려움은 해결
하고 기쁨은 함께 나눌 수 있는 새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거대한 변화와 도전의 파도를 혁신의 동력으로 삼아 2023
년을 멋지게 출발하며 성공의 해로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월 2일
사장

김성호

원자력발전소 설계기술
자립을 위해 설립된
한국전력기술.

기술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로
지난해 12월,
최초로 핵심설비
국산화를 이뤄내며
신한울 1호기를
성공적으로
준공했습니다.

미래를 밝히는 기술.
한국전력기술은
기술을 통해 더 나은
인류의 행복을
실현합니다.

LEE JUN

“ K-원전 신한울 1,2호기를 말하다 ”

신한울 1,2호기 사업책임자 **이준** 처장

지난 12월 14일 신한울 1호기 준공 기념행사가 열렸다. 2010년 착공하여 12년 만에 준공된 우리나라 27번째 원전인 신한울 1호기는 핵심설비 국산화에 성공한 국내 최초의 발전소다. 신한울 1호기 준공 사업책임자(PM)로서 성공적으로 준공 행사를 마친 이준 처장을 만나 신한울 1,2호기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봤다.
글. 양지예 사진. 이승현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신한울 1,2호기 사업책임자(PM) 이준입니다. 2020년 6월에 사업부책임자(APM)로서 신한울 1,2호기 사업에 처음 참여하였고, 2022년 1월부터 현재까지 신한울 1,2호기 PM을 맡고 있습니다.

Q 지금까지 많은 사업에 참여해서 좋은 성과를 이뤄내셨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사업이 있으신가요?

1992년도에 입사하여 다양한 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최초 수출원전인 BNPP사업에 참여하였던 일이 먼저 기억에 남는데요. 8년여 동안 공조설계 소분야책임자와 기계분야책임자를 역임하면서 중동의 모래 폭풍과 무더위 등 극한 환경조건 하에서도 안전하게 운전될 수 있는 공기조화계통 설계기준을 정립하여 무사히 준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신한울 1,2호기 사업이 가장 기억에 남는 사업이 될 것 같아요. 원자력발전소 준공 PM은 우스갯소리로 3대가 덕을 쌓아야 경험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신한울 1,2호기 사업은 개인적으로도 정말 의미가 남다른입니다.

Q 신한울 1,2호기 PM으로서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맡고 계신가요?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여 우리 사업의 대외업무를 관리하고 사업품질, 사업현안, 공정 및 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이 있으며, 회사 및 원자력본부의 사업수주와 매출달성을 위한 사업개발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Q 지난 12월 14일에 신한울 1호기 준공 기념행사가 개최되었는데요, 신한울 1호기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신한울 1호기는 2010년 4월 착공하여 12년 만인 2022년 12월 상업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차세대 한국형 원전인 APR1400이 적용된 신한울 1호기는 100만kW급 기존 원전보다 40%나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할 수 있고, 설계수명도 기존 40년에서 60년으로 개선되었으며, 내진설계 기준을 강화하여 0.3g(리히터 규모 7.0)의 지진에도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대형화재 또는 폭발을 대비한 대처설계 적용으로 원전의 안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신한울 1호기는 경북 연강





66

신한울 1호기는 그간 미자립 영역으로 남아있던 핵심기자재인 원자로냉각재펌프(RCP) 및 원전계측제어시스템(MMIS)을 국산화한 최초의 원전입니다.

99



전력 소비량의 약 23%를 생산하기 때문에 올겨울 안정적인 전력수급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Q 최초로 핵심설비 국산화를 이뤘다는 점이 신한울 1,2호기 사업에서 큰 의미가 있는 걸까요?

신한울 1호기는 우리나라 27번째 원전으로, 최초로 핵심설비 국산화를 이뤘다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신한울 1호기는 그간 미자립 영역으로 남아있던 핵심기자재인 원자로냉각재펌프(RCP) 및 원전계측제어시스템(MMIS)을 국산화한 최초의 원전입니다. 특히 한국전력기술이 기술개발에 일조한 MMIS는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신경망과 두뇌에 해당하는 원전의 핵심설비인데요, 발전소의 정상, 비정상, 사고 상황을 포함한 모든 운전모드와 연관된 발전소 감시 및 제어, 보호 기능을 수행하는 계측제어설비입니다. 우리가 항상 2%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영역을 우리 회사를 비롯한 국내 기술진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이룰 수 있었던 결과라 무척 자랑스럽습니다.

Q 핵심기술 국산화를 이룸으로써 대표적인 K-원전이 된 신한울 1,2호기가 수출에도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맞습니다. 최초의 한국표준형원전인 한빛 3,4호기부터 새울 1,2호기까지 핵심기술을 해외기술에 의존해 왔는데요. 미자립 핵심

기술의 국산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기술 개발을 한 결과, 신한울 1,2호기 건설원전에 최초로 적용되어 시운전 및 출력상승시험을 통해 성능이 입증되었습니다. 핵심기술 자립에 성공함으로써 수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사업을 이끌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셨나요?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사업을 할 때 품질과 공정,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품질에 만전을 기하면서도 기한에 맞게 일정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늘 힘들 수밖에 없어요. 좋은 품질과 일정 준수를 위해서는 충분한 인적자원과 시간이 필요한데 인력과 시간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책임자로서 부족한 인력과 시간에 쫓기는 직원들을 독려하고, 더불어 갈등을 해결하고 조율해 나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가장 힘들었어요. 그래도 직원들의 책임감과 사업 참여자들의 목적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무사히 준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Q 이 사업의 비하인드 스토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살짝 공개해 주세요.

딱히 비하인드 스토리라고 할 만한 것은 없는데요, 굳이 말하자면 직원들의 노고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최초의 핵심

기술 국산화라는 성과 뒤에는 밤낮없이 일하고 고군분투한 직원들의 노력이 있었어요. 직원들의 희생이 동반됐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Q 앞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후배들에게도 격려와 조언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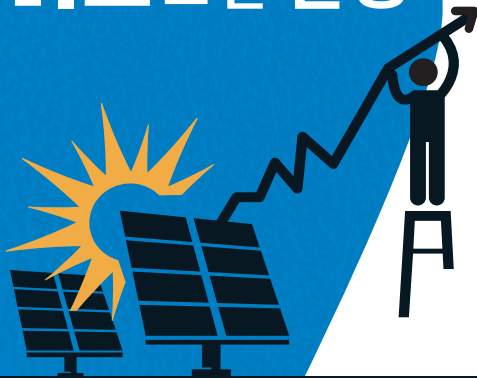
가끔 직원들이 우리가 가진 자산이나 실력을 저평가하는 것 같아 안타까워요. 저는 우리 직원들이 원자력발전소 설계 업무에 관해서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업무 능력에 대해 자부심을 더 가졌으면 좋겠어요. 한편으로는 너무 일에 치여 사는 것 같아 안타깝기도 합니다. 직원들이 자신을 살펴 가면서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Q 얼마 전 승진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축하드려요. 책임감이 더욱 커지셨을 것 같은데 앞으로 계획이나 바라는 점을 말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승진할 수 있었던 건 신한울 1호기를 성공적으로 준공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승진을 하고 책임감이 더욱 커진 것은 말할 것도 없죠. 2023년에 신한울 2호기 준공이 계획되어 있는데요. 2호기도 무사히 준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C**



2034년 매출액 목표

1.2조 원 달성

탄소중립 매출

1조 원(탄소를 발생하지 않는
에너지 사업 매출액 총합)

에너지 안보 기여도

100 %국책사업 설계공정률,
국내 원전 O&M 매출,
미래성장사업 투자미래성장사업투자
1,000억 원

ESG 종합등급

A⁺ 달성

직원만족도

95 점**KEPCO E&C VISION 2034****Technology for Earth, Energy for Human**

전략방향

- ▶ 주력·성장사업 활성화
- ▶ 미래사업 다각화
- ▶ 에너지기술 경쟁력 확보
- ▶ 지속가능 경영체계 구축

해외원전사업 매출

5,000억 원해외 대형원전-SMR 등
신규건설, O&M, 컨설팅,
사후관리 등 원전 전주기
해외사업 매출 목표 설정

R&D 사업화율

70 %R&D 투자
연 1,000억 원**MIS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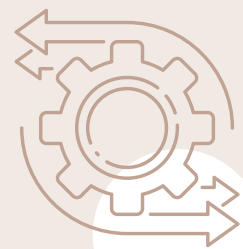
친환경 에너지 기술을 기반으로
미래 에너지 산업을 선도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業연계 거점의료기관

비상발전기 점검



봉사 활동

화재 등 긴급재난 상황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비상발전설비를 선제적으로 유지 보수해야 한다.
한국전력기술은 에너지공기업으로서 본업의 기술을 활용해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며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 중이다.

자료: 상생노무처



한국전력기술의 기술 역량을 활용한 봉사활동

전국 의료기관에 설치된 6,430대 비상발전기 중 40개 의료기관 표본 추출 비상발전기 적정성 확인 결과 60%인 24개 기관이 용량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만약 재난상황 시 단전으로 인한 2차 의료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점검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그에 따른 전기설비 및 의료용 전기기기에 비상전원을 공급해야 한다.

한국전력기술 참사랑봉사단은 2021년 시범사업으로 김천시에 위치한 김천제일병원과 김천의료원의 비상발전기 작동 점검과 부품을 교체하는 등 봉사활동을 추진했다. 그리고 다음 해인 2022년 11월 29일과 12월 27일 양일에 걸쳐 경북 지역 거점의료기관인 구미 순천향대학병원과 경주 동국대병원에서 지역의 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실시했다.

5개 기관의 협업으로 지역 현안 해결

2022년 경북지역문제해결플랫폼의 실행과제로 채택된 '業연계 거점의료기관 비상발전기 점검 봉사활동'은 단독으로 진행했던 2021년과 달리 공공기관, 지자체, 시민재단 등 5개 기관의 협업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했다. 향후에도 한국전력기술은 여러 기관과 함께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E&C**





원자력기술실 인허가팀 ×
기계기술실 건설원전 보조계통설계팀

너와 내가
‘우리’



되던 날

올겨울 들어서 처음으로 날씨가 영하 10℃ 아래로 곤두박질치던 날이었다.
게다가 칼바람까지 더해져서 그야말로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날씨는 ‘우리’가 단합하는 데 작은 해프닝을 더할 뿐이었다.
친목도모를 위해 뭉친 원자력기술실 인허가팀과 기계기술실 건설원전 보조계통설계팀의 이야기이다.
특별히 마련된 커피차 이벤트에 참여해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든 두 팀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본다.
글 이서율 사진 조병우



날씨는 추웠고, 조금은 어색(?)했지만 따뜻한 커피 한 잔과 달콤한 마카롱을 하나씩 들고 서로를 마주했다. 두 팀이 많은 일을 함께하지만 얼굴을 보면서 티타임을 갖게 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점심식사를 마친 사람들이 본사 앞마당에 마련된 커피차 앞으로 모여들었다. 원자력기술실 인허가팀과 기계기술실 건설원전 보조계통설계팀이 그 주인공이다.

날씨는 추웠고, 조금은 어색(?)했지만 따뜻한 커피 한 잔과 달콤한 마카롱을 하나씩 들고 서로를 마주했다. 두 팀이 많은 일을 함께하지만 실질적으로 얼굴을 보면서 점심식사를 하고 티타임을 갖게 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전화나 온라인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각자가 일정과 사투를 벌여야 했기 때문에 친목도모는 업무를 내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인허가팀은 기술실 전체와 협업하고 있지만 특히 기계기술실에 요청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협업이라기보다 요청드릴 일이 많죠. 보조계통설계팀에서 늘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라며 인허가팀 장범식 팀장이 먼저 고마움을 표현했다.

이에 보조계통설계팀 권대일 팀장은 “원자력발전소의 건설과 운영을 위해서 승인은 꼭 필요합니다. 승인이 나야 건설을 하고 운영할 수 있기에 인허가팀의 업무는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가 협조하는 것이 아니라 인허가팀이 총대를 메고 타 기관과 대응하고 있는 것입니다.”라며 인허가팀의 인사에 화답했다.

인허가팀은 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인허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국내 사업, 해외사업, 신기술 등으로 업무를 나눠서 진행하고 있으며, 9명의 팀원



중 사내 다른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 팀원을 제외하고 주로 국내 사업을 맡고 있는 장범식 팀장, 천재민 대리, 조혜원 사원이 함께했다.

관계 기관이나 사업주의 요청에 대응하며 규제요건 해석, 안전성분석보고서 준비 등을 하고 있는 인허가팀이기에 동료들과 협업을 잘 이끌어내야 하는 것은 중요하다. 특히 보조계통설계팀의 도움은 꼭 필요할 터.

한편 원자력발전소 건설 관련 기계 분야에서도 보조계통을 담당하고 있는 보조계통설계팀은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배우자 출산으로 참석하지 못한 임두남 과장과 몸이 아파서 함께하지 못한 이보라 대리를 빼고 백선휘 대리, 윤동원 사원, 이재훈 사원, 김상정 사원, 김덕겸 사원이 자리했다.

‘승인’을 위한 협업, 그 치열한 시간과의 싸움

두 팀은 최근까지 새울 3,4호기, 신한울 3,4호기 등 이슈가 되었던 국내 사업으로 치열했던 시간들을 함께했다. 특히 승인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안전성 분석보고서 작성은 일정을 맞추는 것이 관건이었다.

“안전성분석보고서는 1만여 페이지 분량입니다. 타 기관 포함해서 10개 이상의 분야에서 협업으로 작성하고 있지만, 내부에서는 여러 분야 중 특히 기계분야가 큰 축을 담당하고 있죠. 보고서 작성은 물론 규제 기관의 질의, 요청 사항에 대한 답변과 대응을 위해서는 기계분야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장 팀장의 말처럼 동시에 여러 가지 사안들이 발생하다 보니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고 늘 시간에 쫓기기 마련이다. 인허가팀이 무리한 일정을 요구해야 하는 일도 많지만 대외기관의 요구조건을 수용해야 하는 입장이라는 것을 보조계통설계팀도 잘 알고 있다.





인허가팀은 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인허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주로 국내 사업을 맡고 있는
장범식 팀장, 천재민 대리,
조혜원 사원이 촬영에 함께했다.



권 팀장은 “무리한 일정을 맞추기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인력이 부족하고 업무가 많으니 힘든 일이긴 하나 인허가팀의 노고를 알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해결방법이라는 생각입니다.”라며 주말 근무와 야근도 불사한다는 장 팀장을 보며 늘 노력하겠다는 말을 전한다.

상대팀에 바라는 것도 있다. 인허가팀 천재민 대리는 “일을 대면보다 비대면으로 진행할 경우가 많은데, 아무래도 온라인의 한계가 있어서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의도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정을 재촉하면서 말투로 인해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마음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며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보조계통설계팀 백선훈 대리는 “인허가팀과 규제기관 등에 출장을 자주 다녔는데, 그때 알게 됐습니다. 나보다 일도 많고 힘든 분들이 여기 있었구나 싶었죠. 그래서 인허가팀 모두 건강 조심하면서 스트레스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마음을 전하며 더불어 “연차가 얼마 되지 않은 직원이 타 부서에 요청할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편하게 말해주길 바랍니다.”라고 당부했다.

그동안 많은 프로젝트를 함께했지만 처음 두 팀이 대면했던 오늘은, 서로에게 박수를 보내며 마음을 표현하고 온기를 전했던 시간이 되었다. 2023년에도, 그 이후에도 이들 두 팀의 협업은 계속될 예정이다. 과거보다는 조금 더 나은 시너지로 더 큰 성과를 내리라는 것을 두 팀 모두 알고 있다. ‘우리’가 된 인허가팀과 보조계통설계팀이 함께 걷는 길을 응원해본다. **E&C**



MINI INTERVIEW



오늘 같은 커피차 이벤트!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작은 규모일거라고 생각했는데, 전체 인원을 확인해서 대규모로 지원해주신 것에 놀랍고 감사합니다. 친분이 있건 업무적으로 아는 사이건 커피를 받으러 가는 김에 담소도 나누고 잠깐의 여유를 갖는다는 것은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규모의 이벤트는 연예인 촬영지에서나 볼 수 있는데, 사내에서 보니 신선합니다. 직원들과 따뜻한 커피 한 잔씩 하면서 대화를 한 의미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10년 전에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건강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올해에도 모든 분들이 건강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한전기술서비스(주)에 배달된 맛있는 선물 감사와 응원이 깃든 **미식 풍경**

결에서 응원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 든든한 '내 편'을 얻은 기분이다.
한국전력기술의 자회사 한전기술서비스(주)에 특별한 선물이 도착했다. 직원들에게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담은 도시락이 전달된 것. 뜻밖의 선물로 맛있는 힐링을 누린 풍경을 함께했다.

글. 김주희 사진. 이수연



서프라이즈~ 도시락이 배달되었습니다

한전기술서비스(주) 구성원들에게 도시락 선물이 배달되었다. 소속과 부서가 다른 익명의 동료들이 '한국전력기술의 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께하는 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 것이다. 조용한 사무실에 풍성하고 아여쁜 도시락이 펼쳐지자 구성원들이 일순 몰려들었다. 생각지도 못한 이벤트에 놀라기도 했지만 모두의 얼굴에 은은한 미소가 번진다.

한전기술서비스(주)는 한국전력기술의 자회사로 정부의 공공 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2021년 4월 설립되었다. 기획총무부와 재무관리부, 시설관리부, 경비안내부, 미화자산부, 차량지원부, 전산통신부로 구성되었다. 이들의 전문 역량과 정성스러운 손길이 한국전력기술 곳곳에 닿고 있다.



행복이 입안 가득, 마음을 더하다

구성원들이 테이블 주위로 둥글게 모이자 즐거운 미식 시간이 시작되었다. 김밥, 썸밥, 닭가슴살샌드위치, 참스테이크, 목살구이, 샐러드, 바질파스타, 과일, 오렌지주스 등 다양한 메뉴로 구성된 도시락이 펼쳐졌다. “간식은 언제나 좋습니다!”란 누군가의 외침에 저마다 행복한 한 입을 즐긴다. “푸짐하게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창 맛이 절정으로 오른 딸기가 반갑네요.” 음식을 입에 넣자 얼굴에 다디단 미소가 떠오른다. 특별한 날을 기념하고자 모두 함께하는 인증샷 촬영도 잊지 않는다. 재무관리부 김소희 대리가 소감을 밝혔다.

“도시락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회사 임직원 중 한전기술서비스(주)가 자회사라는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사옥 안팎에 걸쳐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우리 회사에 대해 알릴 수 있게 된 것 같아 기쁩니다.”

한전기술서비스(주)의 사훈은 '배려와 존중으로 하나 되는 회사'이다. 2022년 초,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공모를 통해 완성된 사훈이기에 한층 의미를 더한다. 기획총무부 이선아 사원은 “사훈처럼 서로 배려하고 협력하는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전력기술 동료들의 응원도 받았으니 더욱 힘내서 늘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라는 각오를 전했다.

회사가 설립된 이후 그동안 기반을 탄탄하게 다져왔다면 2023년에는 더욱 안정화를 이끌겠다는 한전기술서비스(주). 오늘의 도시락을 통해 건네받은 진심을 원동력 삼아 현장 곳곳에서 책무를 다할 것을 다짐했다. 비록 소속은 다를지언정 '하나의 울타리'라는 의미가 더욱 짙고 선명하게 다가온 자리로 남았다. E&C



한전기술서비스(주) 직원들에게 도시락 선물이 배달되었다.
소속과 부서가 다른 익명의 동료들이 '한국전력기술의 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께하는 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 것이다.



전기기술실 T1전기계통팀 강지인 대리, 구선경 사원의 유쾌한 하루

취미는 일상의 활력!
핸드빌딩으로 재미 더했어요~



동탄호수 도예공방을 찾은 T1전기계통팀 강지인 대리, 구선경 사원의 아주 특별한 체험이 시작되었다.

주무르고 뿌리고, 돌리고 다듬으며 그들의 손에서 예쁘게 만들어지는 그릇과 함께 유쾌한 웃음이 쏟아졌다. 더없이 즐거웠던 그들의 핸드빌딩 클래스 속으로 들어가 본다.

글. 이서율 사진. 고인순



Hand building





변형과 갈라짐을 막기 위해
중간 중간 물기를 적셔주며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내기에 여념이 없다.



특별했던 첫 핸드빌딩

‘그릇이란 그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라 거기에 담길 무엇인가를 돋보이게 받쳐주는 훌륭한 조연’이라고 어느 유명 도예가가 말했었다. 하지만 그릇을 만드는 일은 마음과 정성을 다해 완성되는 만큼 그릇을 빚는 그 시간만큼은 오롯이 주연이 되는 순간이 된다. 최근에는 핸드빌딩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취미로 삼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핸드빌딩을 직접 해보기 위해 두 사람이 도예공방을 찾았다. 입사 6년차 강지인 대리님과 4년차 구선경 사원이 이날의 주인공이다.

이번 핸드빌딩 체험은 후배인 구선경 사원이 선배인 강지인 대리에게 함께하자고 청했는데, 주제를 듣지도 않고 선배는 한번에 오케이 했다. ‘좋아하는 후배가 불러주기도 하고 이런 체험을 좋아한다’는 것이 강지인 대리의 수락 이유다.

핸드빌딩은 테이블 위에서 수동물레를 사용하여 손으로 직접 원하는 형태의 그릇을 만드는 방법이다. 컵, 화병, 접시, 인센스홀더 등 여러 가지 만들기가 가능하데, 두 사람은 이니셜 머그컵과 접시를 만들 예정이다. 컵과 접시의 크기를 어떻게 할지, 또 어떤 모양을 만들지 취향대로 정하면 된다. 중요한 것은 재미있게 체험

Class



하는 것이 관건. 두 사람은 어떤 작품을 만들지 잠깐 생각한 후 종이에 선 스케치를 시작했다.

핸드빌딩은 처음이라는 두 사람이지만, 스케치를 시작으로 수동물레 위에서 백자토를 만지며 형태를 만들며 집중하는 모습은 전문가 못지않다. 변형과 갈라짐을 막기 위해 중간 중간 물기를 적셔주며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내기에 여념이 없다.

‘잘 살기’ 위한 배움은 지금도 진행 중

다음은 초벌 색화장토를 이용해서 만들어둔 그릇에 색깔을 입히는 작업이다. 물감 뿌리기, 붓으로 색칠하기, 손이나 스폰지로도 컬러를 입힐 수 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물로 닦거나 칼로 긁어내 수정도 가능하다. 마음 가는 대로 디자인하면 된다.

강지인 대리님은 하늘색을, 구선경 사원은 분홍색을 각각 선택하고 물감 뿌리기로 모양을 냈다. 같은 방법을 이용했지만, 그릇에 담긴 디자인은 사뭇 다르다. 이렇게 만들어진 컵과 접시는 2주간 건조 시간을 가진 후 1주간의 초벌과 재벌 과정을 거쳐 완성될 예정이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 모토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두 사람이 이날처럼 밝고 유쾌하게 2023년 목표하는 바를 이루길 응원해 본다. **E&C**

MINI INTERVIEW



강지인 대리
E1전기계통팀

집중해서 핸드빌딩을 하니깐 잠시나마 복잡한 생각이 사라지는 것 같네요. 처음 해보는 것이어서 조금 걱정했는데 강사님이 잘 알려주셔서 즐겁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구선경 사원
E1전기계통팀

김천을 벗어나 새로운 공간에서 선배님을 만나니 즐겁고, 새로운 모습도 보게 되어서 너무 재미있고 신이 났어요. 체험 주제를 말하지도 않았는데 선배님이 바로 오케이해서 기뻐했습니다.



#1

10만 원의 행복 첫 번째 주인공

에너지사업운영실 사업관리팀
전현정 사원

글. 박영화 사진. 고인순
영상 촬영. 전현정 영상 편집. 최의인



QR코드를 스캔하시면
10만 원의 행복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MISSION1

제로웨이스트숍 이용하기

MISSION2

가게 2곳 이상 방문하기



10만 원으로 원하는 것을 모두 살 수 있다고? 단 2가지 미션만 성공한다면! ‘10만 원의 행복’ 첫 번째 주인공으로 선정된 에너지사업운영실 사업관리팀 전현정 사원이 친한 언니와 함께 12월의 마지막 금요일 저녁, 특별한 시간을 보냈다.

첫 번째 장소는 대구에 위치한 ‘더 커먼. 생산부터 폐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지구에 부담을 덜어주는 물건을 판매하거나 주방·세탁세제 등의 리필스테이션을 운영 중이다. 또 저탄소 식음료 개발을 통해 지구와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건강한 음식도 판매되고 있다. 더 커먼에서 비건 푸드를 즐긴 후 향한 곳은 바로 인생네컷. 특별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꼭 들러야 하는 필수코스다.

만족스러운 사진 촬영을 마친 후 두 사람이 방문한 다음 가게는 카페 ‘그로잉’이다. 오래된 건물에 중고물품으로 채운 저탄소 노력형 카페로, 포장을 줄이거나 재 활용이 가능한 상품을 판매하는 곳이다. 두 사람은 그로잉에서 사계절을 담은 과일로 맛을 낸 건강한 음료와 스마일 감자가 귀여운 해피 프렌즈 프라이로 디저트를 즐기며 10만 원의 행복을 마무리했다.

“평소 비건 카페나 제로웨이스트숍에 관심은 있었지만 행동으로 옮기기 어려웠는데, 이번 기회에 가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가게를 찾는 손님들을 보면서 ‘지구’를 생각하고 행동하는 분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그 실천력을 본받고 싶어요. 정말 행복했어요. 여러분도 ‘10만 원의 행복’에 참여해서 특별한 추억 만드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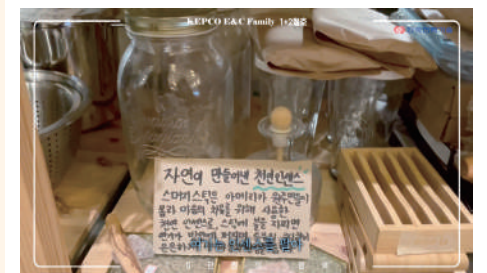


짠~
10만 원
받았어요~

재활용 용기에
꼭꼭 눌러
바디워시를
담아봅니다.

그로잉에서 판매 중인
천연인센스. 특유의
우드향을 맡으니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리틀 포레스트와
레몬네이드,
그리고
해피 프렌즈 프라이.
맛있는 음식에
재방문 의사 있음!



📍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741



📍 대구 남구 봉덕로9길 74 1층

한 가족의 어느 멋진 날 도건아, 모건아 사랑해

정보보안실 보안운영팀
김정호 과장의 가족사진

도건이 1000일, 모건이 500일을 기념하며

글. 한울
사진. 고석운

함께할수록 가족은 서로를 더욱 빛나게 만든다.
새해를 맞아 사진 촬영으로 특별한 추억을 남기고 싶었던 김정호 과장 가족이 행복이 충만한 시간을 보냈다.



“도건이, 모건이 모두 사진 보는 걸 무척 좋아합니다.
그래서 기대를 가득 안고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뚝뚝뚝뚝 두 눈으로 스튜디오 곳곳을 돌아다니는 귀여운 도건이와 모건이.
준비해 온 옷으로 갈아입은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보면서
방긋방긋 웃는데 얼굴이 어여쁜 꽃송이 같았다.

“도건이가 태어난 지 1000일, 모건이는 500일이 다 되어가기에 ‘가족 사진 한번 찍어야지’
 마음먹고 있었는데, 때마침 사보 이벤트가 있어서 신청했습니다.”
 첫 촬영은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는 곳에서 진행되었다. 부부는 도건이와
 모건이가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환하게 웃었다. 참 예쁜 가족이다.



아빠는 두 아이를 번쩍 안아주기도 하고, 볼에 입을 맞추기도 했다.
 그러자 아이들은 아빠에게 매달리며 장난을 쳤다.
 아빠가 놀이터로 변하는 순간이었다. 아내 초희 씨는 남편과
 두 아이를 바라보며 환한 웃음꽃을 터뜨렸다.



두 아이를 낳고 부부의 시간은 행복과 기쁨으로 채워졌다.
 물론 육아를 하다 보면 때때로 힘겹고 지치는 순간도 있지만 엄마, 아빠를
 바라보는 두 아이의 사랑스러운 눈빛에, 종알종알 노래하는 소리에,
 와락 안길 때 느껴지는 따뜻한 체온에 부부의 고단함은 사르르 녹고 만다.
 김정호 과장 가족은 그렇게 사랑으로 가득하다.



올해로 결혼 4년 차인 부부는 친구 부부의 소개로 만
 났다. 두 사람 모두 대학생이던 시절이었다. 첫눈에
 반한 두 사람은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년
 반이 지나도 여전히 설레는 마음이면 결혼하자”고 약
 속했다. 그리고 마침내 2년 연애의 종지부를 찍고 웨
 딩마치를 올렸다.
 “성격이 정반대이기 때문에 아내를 매력적으로 느꼈
 던 것 같아요. 저는 외향형에 즉흥적인 성격이라면 아
 내는 내향형에 차분하고 계획적인 성격이에요. 아내
 에게서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혼을
 결심한 당시에는 제가 취업이 안 된 상태였기에 결혼
 을 좀 미루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돈은 자신이
 벌면 된다’면서 빨리 결혼하자고 그러더군요. 다행히
 제가 빠른 시일 내에 취업이 되었고 무사히 결혼에 골
 인할 수 있었습니다.”
 초희 씨가 결혼을 서두른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초희
 씨는 배우자로서 ‘인간 김정호’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
 그녀는 이미 결심을 했기에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었
 다고 말한다.
 “결혼을 결심한 건 남편의 한마디 때문이었어요. 결혼
 전에 남편이 ‘사람은 노력하면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

변화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것은 삶을 태만하게 대
 하는 거다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저는 이 말이 참 좋
 았어요.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 평생을 살아가는 결
 혼은 서로에게 맞춰가려는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이
 사람은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들었던 거죠. 그
 리고 제가 생각한 대로 남편은 말투, 금연, 배려하는 자
 세 등을 실천하면서 저를 위해 변화려고 노력했어요.
 남편의 그러한 마음은 결혼을 하고 지금까지도 마찬가
 지고요. 육아에 대해서도 남편은 매우 적극적이에요.
 공동육아를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많은 부분
 을 함께하고 있고, 아이들에게는 저보다 더 자상해요.”
 아내의 말에 김정호 과장이 미소 지었다. 사실 그는 자
 신을 따라 가족은 물론 일가친척 하나 없는 김천으로
 내려와 두 아이를 키우는 아내에게 더없이 고마운 마
 음이다. 서로에 대한 믿음과 고마움으로 부부는 더욱
 끈끈하게, 더욱더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도건이는 ‘행복한 길을 걸으라’는 뜻이고, 모건이는 ‘계
 획한 대로 세우라’는 의미예요. 두 아이 모두 자신의 이
 름대로 살길 바라고, 무엇보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자상한 남편에게도 항상 고마워요.
 남편이 저에게 ‘네가 1순위’라고 말해주곤 하는데, 그
 말이 따뜻한 위안과 위로가 됐어요. 저에게도 남편은
 항상 1순위예요. 새해에는 우리 가족이 더욱 건강하게,
 더욱 재미있게, 더욱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내의 바람을 들은 김정호 과장이 “새해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고마운 마음을 더 표현하고, 사랑한다는 말
 을 더 많이 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을 이었다. 시나브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아 가고 있
 는 중인 두 사람이 서로를 마주 보고 웃었다. 도건이
 와 모건이도 엄마, 아빠를 따라 웃었다. 가족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고 사랑스러운 모습이었다. **E&C**

서로에 대한 믿음과 고마움으로
 부부는 더욱 끈끈하게,
 더욱 더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다시 갈 지도

고성의
푸른 바다처럼

빛나는 날들이
이기를

문득 바다가 보고 싶어지는 날이 있다.
특히 한 해가 시작할 때쯤이면 더욱 그렇다.
푸른빛이 끝을 모르고 아득하게 펼쳐진
망망대해처럼,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도
근심 걱정 없이 탄탄대로였으면 하는
바람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어쩌다 떠난
고성에서 마주친 한없이 푸른 바다.
여기서라면 새해의 바람이 현실이 될 수
있지도 않을까.

글. 한지현 사진. 정우성



GOSEONG



1 — 고성공룡박물관 입구에 공룡의 모습을 닮은 야외 조형물
2 — 상족암 동굴 안과 밖에 있는 공룡 발자국

다채로움이 가득한 고성으로

‘바다’하면 떠오르는 여행지들이 있다. 흔히들 강원도나 제주, 부산을 떠올릴 것 같다. 이곳에 있는 바다는 접근성도 좋고, 아름다워서 많은 이가 찾는 명소란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모두가 떠올리는 그 바다도 좋지만,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바다가 있는 곳으로 가보고 싶다면 망설임 없이 경남 고성을 추천한다. 사천공항에서는 차로 40여 분이면 갈 수 있어 의외로 접근성이 좋고, 소란스럽지 않다는 것도 장점이다. 그래서인지 캠핑 고수들 사이에서는 조용히 캠핑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소문이 나 있는 곳이기도 하다. 고성의 어느 곳을 가야 할지 갈피를 못 잡겠다면, 일단 내비게이션에 상족암군립공원을 입력해보는 건 어떨까. 남해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산책로와,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고성공룡박물관, 백악기 공룡 테마파크, 이국적인 뷰 덕분에 새로운 포토존으로 떠오르는 상족암까지 하나의 장소에서 다양한 재미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다채로운 매력 덕분에 연인, 가족, 친구 등 다양한 나이층의 여행객들이 바로 여기, 상족암군립공원을 찾는다고 한다.

상죽암을 찾아가는 길

상죽암군립공원 안에는 볼거리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인지 그 규모도 어마어마하다. 많이들 간다는 상죽암 먼저 가봐야겠다 싶어서 왔더니, 웬걸. 자연스럽게 고성공룡박물관, 백악기 공룡 테마파크까지 볼 수 있었다. 이 안에 다 있었기에. 지대가 높은 곳에 있어서 입구에서부터 탁 트인 바다를 실컷 감상할 수 있다. 귀여운 공룡 캐릭터들과 실제 공룡 모습과 흡사한 조형물들을 보며 아이들이 있는 집이라면, 한 번쯤 와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야말로 공룡체험의 장이기도 하고, 사방이 바다라서 아이들에게 추억을 선물하기에 제격이기 때문이다.

다양한 공룡들을 지나 드디어 상죽암으로 가는 길. 겨울에 찾아갈 예정이라면, 겨울바람에 바닷바람이 더해져 어마어마한 위력을 드러내는 바람을 조심해야 한다. 옷을 단단히 챙겨 입고 가라는 소리다. 그렇다고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 상죽암까지 가는 길은 계단을 오르내리고, 걷는 약간의 운동이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추위를 이겨낼 수 있다.

TIP



고성공룡박물관
우리나라 최초로 공룡발자국이 발견된 고성. 고성공룡박물관은 그 이룸값을 증명해 보이는 곳이다. 박물관을 찾은 관람객들이 보다 흥미롭게 공룡 화석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하게 준비해 두었다. 지루할 틈이 없이 공룡세계로 빠져들 수 있다.
☎ 055.670.4451 🕒 월요일 휴무



캠프휴시루가든
상죽암군립공원 주변은 카페는 많은데 사실 먹거리는 별로 없다. 여행 중 우연히 찾은 인근의 한식집. 상죽암군립공원에서 차로 십여분을 가야 하지만, 달린 보람이 있다. 따끈한 돌솥밥과 푸짐한 반찬으로 여행객들의 배고픔을 달래준다.



3 — 공룡발자국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상죽암 동굴 주변. 해식동굴 포토존과 바다풍경이 장관.
4, 5 — 고성공룡박물관 공룡공원에 전시된 공룡 화석과 모형



SANG JOK AM



상죽암을 품은 바다를 따라

지형이 밥상의 다리를 닮았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상죽암. 퇴적암으로 이루어진 지층이 파도에 의해 침식되어 동굴이 만들어지고, 남은 부분이 밥상다리의 모습을 띠게 되었다고 한다. 실제로 이 동굴 안은 포토존으로 떠오르는 곳이라고. 층층이 쌓인 지층과 바다가 어우러져 ‘우리나라에도 이런 곳이 있었나?’ 생각이 들 정도로 이국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긴다.
동굴 안과 밖에 있는 공룡 발자국과 연흔 등을 발견하는 재미도 놓치지 말 것. 이 일대는 백악기 공룡 발자국 화석 산지로, 화석의 양은 물론 다양성에서도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곳이라고 한다. 그리고 조금 더 바다를 즐기고 싶다면, 해안누리길을 따라 바다 산책을 해보는 것도 좋다. 상죽암에서부터 몽돌 해변, 공룡화석 탐방로, 상죽암 모래해변, 맥전포항까지 이어지는 이 바다 데크길을 따라 걷다 보면 고성의 바다를 만날 수 있다. **E&C**



물건은 준비됐는지?



매일 갖고 싶은 책상을 만드는

오피스 잇템

업무 능력도 장비빨이다?
근무환경은 업무 효율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친다. 머물고 싶은
자리가 곧 일할 맛 나는 회사를
만들기 때문이다.
큰돈을 쓸 필요도 없다.
소소하게 따라 하기 좋은 책상 위
물건들을 소개한다.
글. 편집실 사진. 조병우

#ON THE DESK



향기까지 관리한다 '디퓨저'

차분한 분위기를 만드는 데 향기가 빠질 수 없다. 과하지 않은 향은 정신을 맑게 하기 때문. 그중에서도 식물에서 추출한 천연 향료를 사용한 디퓨저는 향이 자극적이지 않아 은은하게 퍼져나간다. 편백나무 향과 시원한 유칼립투스 향은 집중력을 올려준다는 것도 기억하자.

내 책상 위의 초록 '다육이 화분'

초록을 보면 눈의 피로가 덜어진다는 건 모두가 아는 상식이다. 녹색을 인식할 때 시각세포들이 일을 덜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PC의 바탕화면을 초록색으로 설정하거나, 모니터 옆에 식물을 두고 습관적으로 바라보면 눈의 피로를 풀 수 있다. 다육이는 쉽게 죽지 않으니 안심맞춤이다.

사막에 오아시스 '가습기'

겨울철 실내의 적정 습도는 40~60% 정도다. 너무 건조하면 안구건조증을 유발할 수 있어 업무 집중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특히 겨울철에는 실내 난방기구 이용으로 더욱 건조할 수 있으므로 건강을 위해 습도에 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수분 섭취 필수템 '리유저블 컵'

오래 앉아있다 보면 자연스레 목이 마르게 된다. 이때 재활용할 수 있는 컵을 사용하면 매번 탕비실로 향하지 않아도 된다. 뚜껑이 있는 컵을 이용하면 먼지가 들어갈 걱정 없이 목을 축일 수 있다.



작은 변화 큰 효과 '인체공학 버티컬 마우스'

오랜 시간 작업을 하다 보면 손목에 피로가 많이 쌓이게 된다. 그럴 때는 손목 피로를 줄여주는 인체 공학적인 디자인의 마우스를 추천한다. 자연스럽게 손에 칠 수 있는 모양으로 만들어져 불필요하게 손목에 집중되는 힘을 풀어준다.

책상 정리의 기본템 '데스크 오거나이저'

근무 집중도에 큰 영향을 끼치는 건 무엇일까? 책상의 위치? 조명의 밝기?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정리 정돈이다. 책상 위가 지저분하면 주의산만해지기 쉽기 때문이다. 그럴 때는 자주 쓰는 물건들에 정해진 자리를 만들어 두면 쓸 때도 찾기 쉽고 평소에도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다. **E&C**



#OFFICE IT ITEMS



마음의 문을 두드린 그 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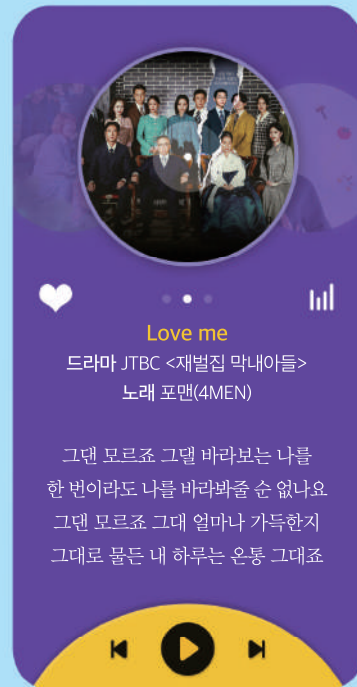
너 감동이었어!

글 편집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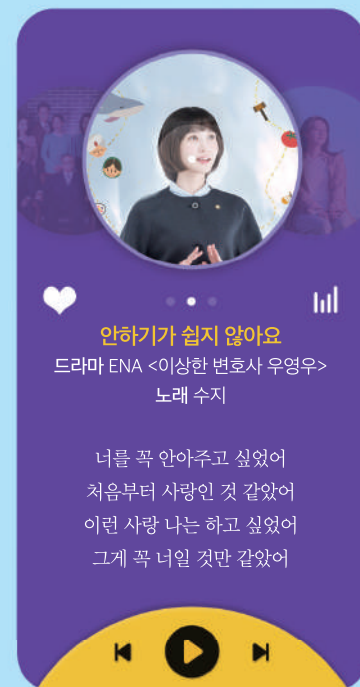


너만 보인단 말이야

최근 종영하며 최고의 시청률(26.9%)을 기록한 <재벌집 막내아들>은 OST 역시 많은 사랑을 받았다. 특히 진도준(송중기)과 서민영(신현빈)의 러브 테마송인 'Love me'는 포맨 특유의 섬세하고 애절한 보이스가 돋보인다.



DRAM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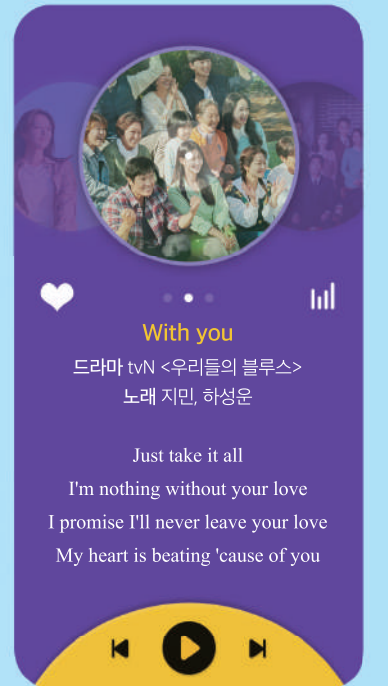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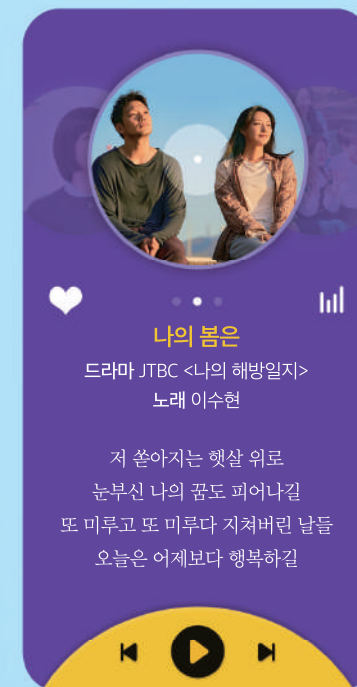
순수한 사랑의 감정으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인기 요인 중 하나는 우영우(박은빈)와 이준호(강태오)의 순수한 사랑 이야기였다. 수지가 부른 '안하기가 쉽지 않아요'를 들으면 이 몽글몽글한 감정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잔잔하게 흐르는 어쿠스틱 기타 선율이 돋보이는 곡이다.



평범한 삶의 찬란함

일상의 소소함 속에서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린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 이 드라마의 핵심 메시지를 담은 곡 '나의 봄'은 악뮤 이수현의 청정한 목소리를 통해 꾸며내지 않은 진솔한 이야기를 전한다.



영원히 당신의 곁에

글로벌 그룹 BTS 지민과 가수 하성운의 특급 콜라보레이션이 이뤄졌다. 바로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 OST를 통해서다.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 있고 싶다는 내용을 담은 노래 'With you'는 드라마의 감동을 고스란히 전달한다. **E&C**

OST



신한울 1호기 준공 기념 AE/SD 공동 워크숍 개최

우리 회사가 종합설계용역과 원자로계통 설계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신한울 1호기의 준공 기념 AE/SD 공동 워크숍 행사를 12월 26일 개최하였다.

워크숍에는 박범서 원자력사업본부장과 김명로 원자로설계개발본부장을 비롯하여 신한울 1,2호기 AE/SD PM, 원자력사업본부와 원자로설계개발본부 주요 직위자 50여 명이 참석하였다. 특히, 이번 워크숍은 한기 AE/SD가 공동으로 개최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워크숍은 신한울 1호기의 준공을 기념하고 각 분야별 기술현안 및 후속 호기 적용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이루어졌으며, 원자력사업본부 주요 설계분야와 원자로설계개발본부 주요 설계분야 수행내용에 대한 발표로 진행되었다.



2022년 신입사원 교육

2022년 신입사원 교육이 12월 21일에서 30일까지 DB생명 인재개발원에서 실시되었다.

이번 교육은 12월 21일 입사한 95명의 신입사원들을 대상으로 마인드셋과 역량 향상 및 동기부여를 위한 임원특강, 회사 소개, ESG 특강 등 다양한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김성암 사장은 특강에서 “어려운 취업 환경 속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한국전력기술의 일원이 된 것을 축하하며, 앞으로 맡은 분야에서 초심을 잃지 않고 각자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 회사의 미래 성장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교육 종료 후 신입사원들은 부서배치, 직무실습교육, 수습기간을 거쳐 정식 임용될 예정이다.



(주)에이씨이에 현판 및 연구소기업 등록증 전달

회사는 12월 2일 기술출자 회사 (주)에이씨이에 현판 및 연구소기업 등록증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는 연구소기업 1호 등록을 기념하고 지속적인 상생협력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 열렸으며, 박성주 미래전략기획본부장과 (주)에이씨이 김일권 대표이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구특구 오영환 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회사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컨설팅 지원을 거쳐 탄소추출기 기술을 보유한 (주)에이씨이에 습식 이산화탄소 포집 설비 특허(특허번호 제10-1874068호)를 기술출자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연구소기업 설립을 최종 승인받은 바 있다.

회사는 향후 강소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공기업 기술사업화 촉진 및 민간기업 상생협력 토대 마련 등 다양한 지원을 할 예정이다.



Seed형 중소기업 협력연구 과제 협약 체결

회사는 12월 14일 중소기업 5개 업체와 “Seed형 중소기업 협력연구 과제” 협약을 체결하고, 상생협력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협약은 에너지산업의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산업 대전환기에 중소기업과 공동연구를 통한 기술협력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하는 중소기업 상생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협약식에는 김용수 전력기술연구원장을 비롯한 리브릿지 이영호 대표이사, 한울전력기술 김종호 이사, 한국실리카도로 박경태 대표이사, 벨류데이터 오준혁 이사, 미래와도전 이병철 대표이사 등 각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회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4차산업 기술과 연계한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한 시장 진입기반 관련 기술개발로 과제당 총 연구비의 75% 내외를 투자할 계획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기업부정 및 대응방안 교육

회사는 12월 13일 1층 국제세미나실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기업 부정 및 대응방안”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고위직 부정 발생 예방과 더불어 회사 내부통제체계 운영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경영진 및 주요 부서장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교육은 파트너 회계사인 삼일회계법인의 이형민 상무를 초대하여 올해 급증한 금융기관 및 상장회사 자금 횡령 관련 부정 사례 원인과 예방 방안, 기업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체계 구축 등으로 진행되었다.

회사는 앞으로도 내부통제활동 개선과 보완 등을 통해 내부통제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임직원 윤리인식을 강화하여 청렴하고 투명한 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제17회 대한민국사회공헌대상 사회공헌 부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표창” 수상

회사는 12월 19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진행된 ‘제17회 2022 대한민국사회공헌대상’에서 ESG 경영 및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성과를 인정받아 사회공헌부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표창”을 수상하였다. 대한민국사회공헌대상은 사회공헌에 기여한 기업과 사회발전과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한 기업에게 수여하는 포상이다.

회사는 지방 이전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여 왔다. 특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및 경상북도와 체결한 협약을 기반으로 業 기술역량을 활용한 낙후농가 전기설비 개선 에너지복지 사업을 매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도에는 경북지역문제해결플랫폼의 대표 참여 공공기관으로 의료기관의 비상발전기 점검사업을 추진하였다. E&C

<KEPCO E&C Family>와 함께해요



QR코드를 스캔하시면
QUIZ와 독자의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QUIZ



E&C를 찾아라!

사보 곳곳에 E&C 팻말이 숨어 있습니다.
숨겨져 있는 곳을 모두 찾아 등장 횟수를 적어주세요.
(힌트 : 작은 팻말도 숨어 있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하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등장 횟수 □ 1번 □ 2번 □ 3번

축하합니다

커피쿠폰 3만 원

유재욱, 조만영
강수지, 김은미
최영수



독자마당

독자 의견

사보를 보고 좋았던 기사,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 개선해야 할 점 등 관심 어
린 의견을 남겨주세요.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신 분 중 5명을 선정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QR코드를 스캔하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똑딱똑딱 목공방 BUBUSOSO. 나무도마 만들기 기사를 흥미롭게 보았습니다. 여간해
서는 서로 함께 할 일이 드문 다른 부서의 직원들끼리 모여 하나의 KEPCO E&C로서
함께 화합을 도모하고 팀워크도 다질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네
요. 본사 주변에 있는 지역의 명소도 잘 소개해준 기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유재욱(사외독자)

칭찬&감사 릴레이편을 관심 있게 읽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전력기술은 좀 딱딱하지 않
을까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사랑과 정이 철철 넘치는 줄 몰랐습니다. 기업문화 활성화
방안으로 칭찬&감사 릴레이를 실시하여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따뜻한 말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배려하는 모습이 너무 멋지고 아름답습니다.

조만영(사외독자)

<KEPCO E&C Family>는 늘 알찬 정보가 많지요. 이번 호에는 유독 알아야 할 내용들
이 많아 고개를 끄덕이며 보았네요. 특히 맛집탐방에 소개된 고창 풍천 장어 기사를
잘 읽었습니다. 요즘 환절기를 맞아 온몸이 노곤하고 입맛도 떨어졌었는데, 글로나마
초겨울 몸보신에 좋은 고창 풍천 장어 기사를 읽는 내내 군침이 돌았어요.

강수지(사외독자)

<Shall We Meet?>의 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최성희 팀장의 기사를 관심 있게 읽었
습니다. 17년 동안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주는 사회
복지사로 근무하며, 더 나아가 식품영양학 전공을 살려 복지와 요리를 합친 급식센터
운영의 꿈까지,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김은미(사외독자)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를 위한 원자력'이라는 기사를 읽고 공감했습니다. 원자력의
위험에 대한 트라우마를 잠재우고 원자력을 이용한 새로운 CF100에 공감하며 사용
한 핵연료의 안전한 저장과 소형원자로를 발전에 이용해 위험을 분산하는 정책적 연
구와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최영수(사외독자)

새롭게 바뀐 <KEPCO E&C Family>

2023년 <KEPCO E&C Family>가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재밌고 풍성한 이야기를 담아 <KEPCO E&C Family>가
바쁜 한기인에게 달콤한 일상의 휴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비하인드 토크

한국전력기술의 사업을 이끌어온 한기인들. 각
분야에서 활약을 펼치고 있는 임직원 인터뷰를
통해 사업의 비하인드 토크를 들어봅니다.



사이좋은 사이

평소 협업 중인 타 부서, 혹은 협력사와 사이 좋
은 사이가 되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커피
차가 여러분이 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도시樂

동료 선후배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세상에 하나뿐인 특별한 도시락을 선물합니다.
지금 바로 도시樂에 신청하세요.



가족의 기록

너무 오래전에 촬영한 가족사진뿐이라면, 가족
들과 특별한 추억을 갖고 싶다면, 지금 바로 신
청하세요. 가족사진을 촬영해드립니다.



클래스콕

친한 선후배, 동료와 함께 원데이 클래스를 즐
기며 특별한 하루를 보냅니다. 함께하고 싶은
분의 이름을 적어 신청해주세요.



10만 원의 행복

한기인이거나 10만 원을 선물 받을 수 있습니
다. 어렵지 않아요. 2개의 미션만 수행한다면
당신도 10만 원의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보 참여 방법

홍보팀 박다경 대리 ☎ 054-421-3039 ✉ sky03tree@kepc0-enc.com